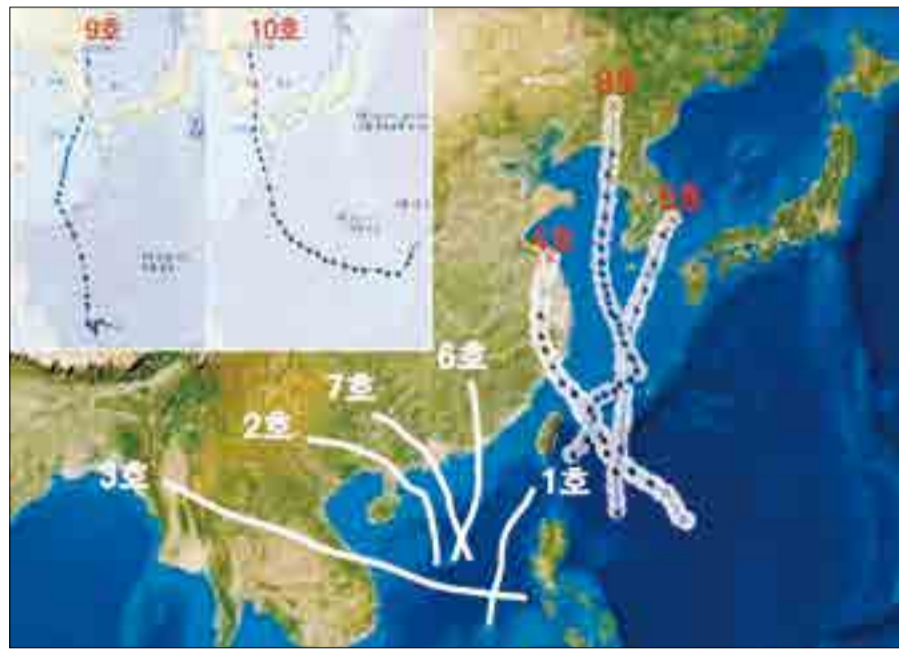


한국은 왜 자연재해로부터 대체로 안전할까

2020년 1월 1일자 승리신문에 고서연 구가의 새해 메시지 『경자년(庚子年)을 맞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글이 실린 바 있는데, 올해 경자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작년보다 더욱더 암울(暗鬱)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자(子)란 하루로 치면 아반삼경(夜半三更)이요 일 년으로 치면 동지(冬至) 무렵이다. 칠후 같은 어둠과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의 시간대이다. 어둠의 신인 마귀가 가장 극성(極盛)한 때라는 말이 된다. 어두워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바로 앞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좌우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인다면 경(庚)이 들어가는 해에 경술국치(庚戌國恥)와 경인년(庚寅年) 6·25 전쟁 등 환란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 위의 사진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태풍의 실제 경로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이 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의 미국은 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한 달 넘게 잡히지 않고 번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산하 스크립스 해양연구소(SIO)는 서부 산불 피해액을 최소 200억달러(약 23조 4천 700억원)로 추정했으며, 이를 9월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발생은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

범으로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급격한 배출에서 찾는다. 그리고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와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킴으로써,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안겨준다. 하지만 고도의 학문을 논하는 완성자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온난화는 땅속에 불덩어리의 열기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에 땅속의 불덩어리가 지구온난화의 제일 원인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지상의 오염물질

에 의한 공해는 대기 상층권으로 연기처럼 올라가 태양빛을 차단하는 그늘 역할을 하기에 오히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려 지구 빙하기로 돌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반대로 더워지고 있다. 문제는 불덩어리가 땅속에 있을 때에는 뜨겁지만 하고 타지 않는 불(=하나님의 불)로 존재하지만 지구 중심에서 지상으로 솟아오르면 용암과 같은 마귀 불로 변화되어 나무와 돌을 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암을 태움으로써 빙하의 균열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바다에 떠도는 빙산의 빈도가 잦아진다는 점이다.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는 구세주 능력

“지구 땅속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마귀 속에 갇혀 있는 상태로 생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들을 전부 석방시키러 왔기 때문에 이제 나무속에 있는 하나님도 석방시키고 모든 물질 속에 있는 하나님도 석방시키고 이 지구땅덩어리 속에 있는 하나님도 석방시키게 되어 있다.”_ 2001.04.27. 구세주 설교말씀 중에서
강력한 태풍이 대한민국에 직통으로 불어오지 못하고 동해나 서해로 스쳐지나가거나 남해안에서 갑자기 세력이 약화되어 소멸되는 이유는, 씌를 주식으로 삼는 한국 백성들을 굶기지 않게 하겠다는(구세주의 베행사 공약)의 실현에서 비롯된다. _ 본지 8면 ‘한국에 태풍 못 온다’ 참조
이제 그대로 땅속의 하나님의 불이 지상으로 석방되어도 타는 마귀 불로 변하지 않게 하려는 운동이 소사(素沙)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은 천재지변으로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구세주의 참진리를 널리 전파하여 지구촌의 자연재해와 괴질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자.* 백태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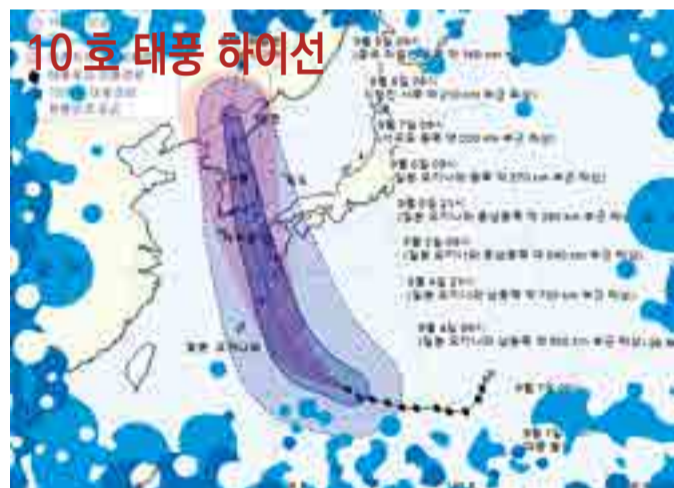
기상변화를 일으키는 온난화의 주원인은 땅속의 불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

올해 경자년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인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병검(病劫)이 맹습(猛襲)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대홍수로 인해 농경지가 초토화 되어 식량 확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음식을 남기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다고 했지만 전부 빗나간 태풍 예보



▲ 기상청 | 2020년 08월 29일 04시 00분 발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CK)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9월 04일 10시 00분 발표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02일 10시 00분 발표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T)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10일 13시 00분 발표 제5호 태풍 장미(JANGMI)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22일 16시 00분 발표 제8호 태풍 바비(BAVI) 예상 이동경로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3>

“아담, 해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의인을 많이 만들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여 빼앗겼던 에덴동산을 회복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늘나라를 건설하려면 우선 하늘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 6000년 전 하나님이 흙을 빚어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죽게 되었으면 죽도록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흙을 빚어 의인을 만들었으면 그때에 벌써 하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은 마귀의 포로가 된 아담과 해와를 석방하여 아담, 해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회복한 다음 마귀의 세상이 사탄의 세상을 뒤집어엎고 영생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마귀 세상을 진멸(殲滅)시키는 자가 곧 구세주다.*

행복한 노년 준비

육부六腑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비장(脾腸)

비위가 약하다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비위가 약하면 소심하기 쉽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로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 소화하지 못해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은 위장만으로는 완전히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위장을 돕는 비장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비장은 크기가 주먹만 하고 혈액이 많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림프질이 림프액 순환을 걸러주는 곳이라면, 비장은 혈액의 성분들을 걸러주는 곳입니다. 비장은 두꺼운 결합조직 주머니에 싸여 있어 내부조직은 적비수(赤脾髓)와 백비수(白脾髓) 2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2가지는 분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고 비장 전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백비수는 림프성 조직으로 대개는 비장혈관 차 있는 도관들의 그물망으로 이곳에서 대부분의 혈액이 걸러집니다. 백비수는 혈장세포, 림프구, 그리고 비장의 여포(濾胞)라고 불리는 림프성 조직과 같은 전형적인 림프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림프절과 같이 혈류 속의 미생물 및 다른 항원들에 대해 반응합니다. 적비수와 백비수 모두에 있는 식세포(食細胞)들은 혈액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역작용을 시작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혈구는 비장에서 제거되며, 적혈구 안에 들어 있던 헤모글로빈은 더 파괴되어 배출 가능한 색소와 철이 되는데, 철은 다른 곳에서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데 다시 사용되기 위해 재순환됩니다. 어떤 종(種)에서는 비장이 비활동 기간 동안 혈액의 저장소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동물이 방어태세를 취하거나 날려고 긴장할 때는 비장을 싸고 있는 막이 수축해 저장했던 혈액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장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비장은 소화 운송을 주관하고 영양분을 전신 각처에 운반한다고 봅니다. 또 몸 안의 수분과 습기도 주관하는데, 만약 비기가 허약해지면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잃게 되어 병이 생깁니다. 즉, 설사와 소변이 잘 안나오고 몸이 무겁거나 푸석푸석하게 됩니다. 비장이 몸 안의 혈액을 통솔하는 힘을 잃게 되면 여러 가지 출혈성의 병, 즉 만성혈변 월경과다 자궁출혈 등이 생깁니다. 사지의 근육도 주관하여 살이 찌고 여위는 것은 비장이 맡고 있습니다. 또 입속과도 직결되어 있어 이상이 생기면 늘 입안이 텅텅하고 개운치 못하고 부스럼, 즉창이 생겨 할게 됩니다. 입술로도 나타내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입술 빛깔이 앵두빛 같고 윤기가 있으며, 병이 있으면 입술이 창백해지고 윤기가 없어집니다. 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과식이나 부적합한 음식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노쇠와 과로이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절도와 규모 있는 생활이 꼭 필요할 인 수명은 120일 정도입니다. 퇴화된 적 김주호 기자

승리자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과 글이 있다. 그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쓸모없는 것도 있다. 살아야 하는 것은 고통의 바다인데 그 고통의 파도를 넘어서는 데에 말과 글은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무엇이 내 인생의 항해를 과연 순조롭게 해 줄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실수를 해서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남이 실수한 것을 보고 깨닫는다고 한다. 그래서 삶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혜를 듬뿍 담은 글과 말! 어떤 책을 읽으면 저자의 에너지가 물씬 느껴지기도 한다. 혼신을 다해 쓴 글에 그 저자의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글은 자신을 이긴 승리자들의 스토리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승리자 조희성님의 글이다. 승리자 조희성님의 말씀을 그대로 엮은 『2000년 8-9월 말씀집』이 벌써 나왔고, 지금 2000.10월 말씀집을 준비 중인데 10월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를 갈구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구세주 예비 말씀집

2000년 8-9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신간서적
승리재단 서구영

1

- ▶ 2000. 8월 출옥 후 매일 설교 말씀 날짜별로 수록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생 결코 얻을 수 없어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제작 |